

# 국회의원 사직 처리 오늘 시한 '긴장'

### 정의장 "본회의 소집할 것"

### 민주당 "先 처리 後 특검"

### 한국당 "강행시 국회 파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취임 사흘째인 13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4월 이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 국민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러 입법 과제들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인내심을 갖고 성실성이껏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이 처리 시한인 지방선거 출마 국

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선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쟁점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에 대해선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여야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

서, 홍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 이후로 드루킹 특검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 시점을 못 박음에 따라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상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은 채 다른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 파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정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 참정권 박탈도 안 되지만,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도 묵살해선 안 된다"며 "추경, 특검법, 국회의원 사퇴처리를 패키지로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밤을 새워서 국회 본회의 입구를 지키는 등 실력 행사를 해서라도 여당의 본회의 임정과 표결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평화당을 설득,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열심히 뒤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실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대변인, 진선미 수석부대표, 홍영표 대표, 신동근, 김종민, 이철희 부대표. /연합뉴스

## 민주 새 원내대표에 홍영표...친문 전면에 나섰다

### 당권 예비주자 수두룩...국회의장 경선·전당대회 주목

여당 내에 친문(친문재인) 주류 인사들이 당 지도부 전면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자리에 오른 것을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친문 진영의 행보가 눈에 띈다.

13일 현재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친문 주자가 많이 포진한 상태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들은 이종걸(5선) 의원, 김진표·박영선·송영길·설훈·안민석(이상 4선) 의원, 윤호중·이인영(3선) 의원, 박병계(제선) 의원, 김

두관(초선) 의원 등이다. 또 우원석 의원과 서울 송파를 재선거에 나서는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같이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10여명 중 자타가 공인하는 친문 인사는 7~8명에 달한다. 특히 친노(친노무현) 좌장이자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이해찬(7선) 의원의 전당대회 출격 여부가 관심거리다. 여기에 오는 16일 6선의 문희상 의원과 5선의 박병석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관심이다. 문희상 의원이 친노·친문 진영 중진이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친문 결집 현상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물론 두 달 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당이 역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반면, 건강간담·정 관계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긴장감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데다, 친문 진영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달, 당내 비주류의 결집·약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지경기자jzkpark@

## 6·13 선거 현장

도지사·구청장·군수 후보

### 김영록 "장애인이 행복한 전남 만들 것"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12일 주말에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장애인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 구상을 가다듬었다. 김 후보는 이날 순천시 조례호수공원과 강진군 가우도에서 열린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동반대회'에 참석, 200여명의 장애인들과 동반을 하며 스킨십을 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뜻해지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도지사가 되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시혜가 아닌 인간적인 삶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길호 신안군수, 무소속 재선 출마 선언



고길호 신안군수가 무소속으로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고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4년은 여러 제도적 규제와 토지 매입, 사업비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4년은 신안군 발전과 질서는 군민을 위해 민선 6기에 추진한 모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6기 동안 축적된 공·인사 개입 및 친인척 군정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투명한 행정,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 장일, 진도읍 남동리 선거사무소 개소



장일 민주당평화당 진도군수 후보는 지난 12일 진도읍 남동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평화당 조배숙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윤영일 의원, 민영삼 전남지사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를 비롯해 이남서 진도군 노인회장, 김용선 한국예총 진도군지회장, 박동원 진도 JC회장 등 지지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장 후보는 "진도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태풍으로 변해 평화당의 승리와 장일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7%에도 못 미치는 전국 최하위권인 진도도 안정된 외치고 있다. 진도는 변화만이 살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도군민과 함께 쓰러져가는 진도를 반드시 살려 내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청년 일자리 창출 최우선 실천"



김성환 민주당평화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청년들의 꿈을 세우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동구 활성화에 필수적인 만큼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취업·출산·결혼 등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동구청장이 다시 된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 방안으로 동구 주민우선 고용 협약회사 선정, 창업지원센터 지속 강화, 청년취업정보센터 신설, 주부 일자리 공동체 지원사업, 노인 실버택배 일자리 사업 확대, 주민참여형 도시 농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 김영우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출산·육아 지원"



김영우 바른미래당 동구청장 후보는 13일 "출산·육아장려정책인 어린이 안전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동구의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고령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동구는 초고령화 사회(21.89%에 진입했지만, 이를 타개할 출산·육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및 어린이 안전보험을 도입해 세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소득층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위한 '난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비용이 없어 육아에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단체별 생색보험'을 제시했다.

### 홍기월, 동구 발전 5대분야 13개 공약 발표



홍기월 민주당평화당 광주 동구의원 예비후보(총장,동명, 계림1·2, 산수1·2동)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경진, 장병완, 천정배 국회의원과 김성환 동구청장 예비후보등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었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5대분야 13개 단위사업의 공약을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홍 후보는 "지난 43년간 동구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일 할 줄 아는 사람' 민원 해결사로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울겠다'는 동구 발전을 위해 365일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 평화당, 광주 서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김명진 선출

민주당평화당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평화당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59.5%의 득표율을 기록해 경쟁자인 홍훈희 변호사(40.5%)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뒤 "호남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호남 개혁정신을 계승하는 광주의 대변인임을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마음을 얻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현명하고 슬기로운 광주시민들이 경쟁부재 일당독주를 막기 위해 문지마 정당투표에서 후보의 품성과 도덕성, 자질, 정책 역량 평가에 따른 투표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다"면서 "인물을 강



조해 본선에 대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후보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치며 당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 대표 비서실장만 6차례 역임하는 등 국회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 재선거는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초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평화당이 김명진 후보를 확정하면서 앞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송광석 후보와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농협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 ▶ 땅만 빌려주어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